

# 특수화학, 대기업 성장엔진 “부상”

SK·LG·한화·웅진 신 성장동력 육성 ... 전자정보·태양광 소재 중심

주요 대기업들이 화학 계열사를 앞세워 미래의 먹거리인 신 성장동력을 육성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인력과 설비가 다른 부문에 비해 고도화된 화학 계열사들이 그룹이 추진하는 미래 성장산업의 첨병 역할을 맡는 사례가 늘고 있다.

SK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SK에너지는 기존의 석유화학 투자 외에 새로운 전자·정보 소재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리튬이온전지 분리막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청주의 3개 라인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충북 증평의 4-7호 라인이 2012년 완공되면 생산능력이 3배인 1억7800만㎡로 늘어난다.

분리막은 SK에너지가 차세대 미래에너지 사업으로 삼은 전기자동차(EV)용 중대형 2차전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소재로 꼽히고 있다.

SK에너지는 휴대폰 등에 들어가는 연성회로기판 소재인 FCCL(Flexible Copper Clad Laminate)과 편광판용 TAC(Triacetyl Cellulose) 필름의 기술개발도 마무리단계에 있어 2011년 이후 사업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른 화학 계열사인 SKC는 태양전지용 필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SKC는 EVA(Ethylene Vinyl Acetate) 시트를 2011년 국내와 미국의 6개 라인에서 3만6000톤을 생산함으로써 세계 수요의 25%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른 태양전지용 핵심소재인 백시트는 일본과 협력을 통해 2010년 안으로 국내 생산할 예정이다.

SKC의 자회사인 SKC솔믹스는 태양전지용 핵심소재인 50MW 폴리실리콘 웨이퍼(Polysilicone Wafer) 생산라인을 2010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LG그룹 화학 계열사인 LG화학은 기존 석유화학 부문은 고부가 소재 사업을 육성시키고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생산에 사활을 걸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 끝에 GM, 포드(Ford) 등과 공급계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다.

태양광 발전의 소재인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도 신중히 검토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화그룹 화학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은 김승연 회장이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선언한 태양광 사업에 올인함으로써 8월 초 세계 4위 수준의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 Solarfun Power을 4300억원에 인수했다.

2009년 울산공장에 30MW급 태양광 셀 제조시설을 도입하는 등 태양광 사업 진출을 모색해 온 한화케미칼은 솔라사업단을 발족해 전문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웅진그룹의 화학 계열사인 웅진케미칼은 고강도·고탄성 슈퍼섬유로 불리는 탄소섬유와 아라미드섬유 사업에 뛰어들어 2012년 71억원, 2014년 883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라미드섬유에는 530억원을 투자해 2012년 중반부터 연간 3000톤을 상업 생산할 계획이다.

시장 관계자는 “기존 화학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잃자 화학기업들이 각자 살 길을 모색하면서 같은 업종으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방향이 다양화하고 있다”며 “화학기업이 각 그룹이 추진하는 신 성장사업의 테스트베드(시험대)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10>